



분석학(糞石學)과 간시궐(幹屎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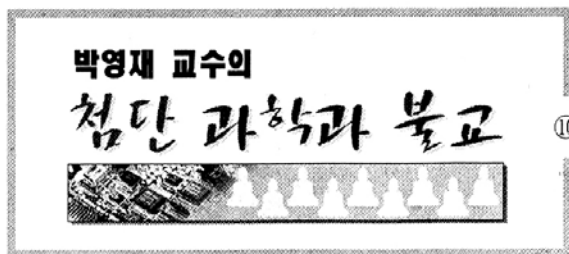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운문 스님이 "간시궐(幹屎橛)일

를 이끌어 주고 있다. "운문 스님께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란 물음에 "간시궐"이라 하시니 화두를 자세히 살피지나 다면, 이 화두를 들어 출연

대변은 48시간전에 먹은 음식물 찌기 상태통해 식탐 등 공양수행 점검 가능

체득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운문 스님의 답변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하다. 단지 "간시궐"이었다. 사실 이때 운문 스님에게 있어서 그 자신이 "간시궐"이었던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깨끗하다니 더럽다니 하는 분별이 들

라." 즉 머리로 헤아려 '성스럽다'는 '더럽다'는 이원적 분별심이 끊어져 버린 때에 이르지 않으면,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히 밝

번갯불의 번쩍임이나 부싷물의 불꽃은 閃電光 擊石火 (순간을 놓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볼 수 없게 되네. 卽得眼 已迷過)

참고로 비록 직접 부처를 체득케 하는 운문 스님의 '간시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현대인들에게 '똥'의 진가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신간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끝으로 필자의 경우, 이른 아침에 향 한 대 타는 시간 동안 좌선을 한 후, 어김없이 상쾌한 배변을 한다. 이때 필자의 화두는 30초 이내에 배출된 필자의 '습시궐(濕屎橛)'이다. 대개 대변은 48시간 전에 먹은 음식의 산물(糞)이므로 이를 통해 이를 전에 식

이렇게 들었다 "화목할수록 장수한다"

부부의 수명

"능히 신앙을 지켜 가장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오기 마련이다." (아난부사불기 종경)

남편이 가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부인은 온순하며 남편에게 의지하는 화목한 부부가 상대적으로 장수한다고 12일 독일 일간지 빌트 차이퐁이 보도했다.

미국 예일대학 의화학자들이 6년 동안 305쌍의 노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간 상호관계와 기대수명'을 조사한 결과, 온화한 전통적 부부가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가정 내외의 문제에 대해 부인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남성 우월적 사고로 가득찬 이른바 '마초'일 경우 다른 유형의 부부에 비해 남편의 수명이 가장 길었다. 또 남편이 생활의 지주이자 조력자이며, 주요 결정권을 행사할 경우 부인 역시 평균치보다 약간 더 오래 살았다.

반면 공격적이고 강인한 부인이 결합한 경우 남편의 기대수명이 가장 짧으며, 남녀 모두 강인할 경우 전통적 커플에 비해 부부 모두 상대적으로 일찍 죽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부부 장수의 비결은 '가정의 화목'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집어침경>은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부부간은 서로의 거울이며, 자신을 이루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 때 의지할 곳은 여전히 따뜻한 가정, 특히 남편의 품이다. 늘 부부간에 서로 뜻을 모아 말과 안색을 화평하게 한다면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회사일로 지친 남편에게 따뜻한 살림살이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오늘 저녁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부터 건네보자. 장수하고 싶다면.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름과 말에 집착하므로, 저 범(凡)이니 성(聖)이니 하는 이름이 장벽이 되어 도안(道眼)을 가로막게 됨으로써 분명하지 못한 것이다. 12분교는 모두 도를 드러내는 말일 뿐인데, 배우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도를 드러내는 말 위에서 알음알이를 내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어서 인과에 떨어져 삼계의 생사를 면하지 못한다. 그대가 살고, 죽고, 가고, 머물고, 집착하고, 벗어남에서 자유됨을 바란다면, 바로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모양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이 활발하게 인연에 응하여서 수만 가지 경계를 펼치지만, 작용하는 곳은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어긋나니, 이름 하여 비발이라고 한다.

승찬은 "도는 어렵지 않으니 취하고 버리고 헤아리고 선택하지만 알으면 된다"고 하였고, 마조는 "평소의 마음이 그대로 도이니 더럽혀지지만 알으면 된다"고 하였다. 마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생각'과 '말'이다. 말은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은 말을 낳는다. 말을 통하여 생각하고 생각을 통하여 말을 한다. 그러나 말과 생각은 마치 풍경화나 정물화같이 그 내용이 실재가

다"고 하였다. 마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생각'과 '말'이다. 말은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은 말을 낳는다. 말을 통하여 생각하고 생각을 통하여 말을 한다. 그러나 말과 생각은 마치 풍경화나 정물화같이 그 내용이 실재가

아니라 허구이다. 즉 우리는 실재의 겉 모습을 그린 허구를 통하여 실재를 알려고 하는 나쁜 버릇을 어릴 때부터 길 들여져 왔다. 이렇게 길들인 습성 때문에 마음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마음공부는 말과 생각에 의지해서

간을 살아라"고 말한다. 말과 생각이라는 그림이 의식 속에서 완성되는 데에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그림을 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림을 그려내는 손놀림에는 그림이 없듯이,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동을 통하여 체험함으로써 확인되는 것이다. 그 행동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아직 말과 생각으로 파악되고 통제되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바로 지금! 마음은 생각과 말에 포장되어 가리워지기 이전의 바로 지금

행동에서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움직임 위에서 모든 느낌·관념·욕망·말·의식 등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의 움직임이야말로 이 세계와 삼라만상의 근거요 원천이다. 그러므로 오직 이 움직임만이 진실이고, 이 움직임 위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느낌·관념·욕망·말·의식 등은 허구이다. 이 진실한 움직임을 가리켜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들 어낼 뿐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이 움직임이란 사물의 이동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니다. 이동하여도 이 움직임이고 이동하지 않아도 이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이 움직임은 억지로 움직인다고 말할 뿐, 움직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옳지 않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임제록 통한 선 공부 22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

도란 모양·뿌리·머뭇없이 작용

간을 살아라"고 말한다. 말과 생각이라는 그림이 의식 속에서 완성되는 데에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그림을 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림을 그려내는 손놀림에는 그림이 없듯이,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동을 통하여 체험함으로써 확인되는 것이다. 그 행동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아직 말과 생각으로 파악되고 통제되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바로 지금! 마음은 생각과 말에 포장되어 가리워지기 이전의 바로 지금

행동에서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움직임 위에서 모든 느낌·관념·욕망·말·의식 등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의 움직임이야말로 이 세계와 삼라만상의 근거요 원천이다. 그러므로 오직 이 움직임만이 진실이고, 이 움직임 위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느낌·관념·욕망·말·의식 등은 허구이다. 이 진실한 움직임을 가리켜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들 어낼 뿐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이 움직임이란 사물의 이동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니다. 이동하여도 이 움직임이고 이동하지 않아도 이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이 움직임은 억지로 움직인다고 말할 뿐, 움직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옳지 않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 오게 Five Precepts. After the Buddha Sakyamuni attained enlightenment, at first men and later women, attracted by his teaching, decided to follow him. They left their homes and joined the order that thus grew up around the Buddha. The men and women who chose this way of life accepted to try to live according to five precepts. Not to kill life 불살생, Not to take anything that is not given 불부도, Not to commit adultery 불사음, Not to lie 불망어, Not to take intoxicants 불음주

전국 육임(六任)강의 안내.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을·기·임(乙·奇·丑)이란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天文(천문)은 太乙, 지리(地理)는 奇門, 인사(人事)는 六壬이라는 것이지요.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 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五術之中帝王」이요 「神示」라고도 합니다.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박이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만 육임가의 판단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道)를 이룬다고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환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추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 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추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임신·선거·구제·취직·승진·매매·임신·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환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배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육임은 한마디로 열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한국 육임학회에서는 이 좋은 육임을 전국적으로 개강(開講)시켜 방방곡곡에 계시는 현인·기사·이인 여러분에게 육임의 진수를 알려드리고자 전국 주요도시에 「육임학당」을 개설합니다. 아래 장소를 보시고 편리한 곳을 택하여 육임에 입문하십시오. 법력과 신명과 도력에 있어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